

탈당 현역의원들 줄줄이 安신당으로...천정배 “곤혹스럽다”

안철수 창당 세력화...엷히고 설킨 야권 신당 통합 방정식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방식으로 정치 세력화를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천정배,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기존의 신당 추진 세력과의 '통합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안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세력화 기초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핵심 메시지는 신당 창당 방침과 함께 이를 위한 준비기구 구성 및 개략적인 일정일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이 신당 창당에 나선 경우 지난 2013년 11월 28일 신당 창당 추진 선언 이후 2년 1개월 만의 재도전이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 의원은 창당 작업을 위한 창당준비위원회 등 실무기구 구성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창당 일정으로는 내년 1월 말 또는 늦어도 설 연휴 이전인 2월 초까지는 신당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구상이 검토되고 있다.

총선 전에 신당을 창당해야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2월15일까지 교섭단체 규모의 신당을 구축할 경우 8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당 창당 방식이다. 안 의원은 천정배·박주선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과의 통합이냐 연대와 관련, 구체적 계획을 밝히기 보다는 신당 세력의 통합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원칙적 수준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안 의원이 제3지대 통합 신당이 아닌 자신이 주도하는 창당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분란에 휩싸일 수 있다. 신당 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과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동력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당 세력이 그리는 그림도 제각각이어서 소통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천정배 의원은 새정치연합 현역 국회의원들에 맞서 광주와

오늘 창당 준비기구·일정 밝혀

제3지대 통합 아닌 독자신당 유력

신당 세력 네갈래로 나뉘어

전남 등 호남에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공천하는 '뉴 DJ(김대중 전 대통령) 플랜'을 신당 창당의 핵심 공약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탈당에 나서거나, 나설 예정인 호남지역 현역 의원들은 안철수 신당으로의 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안 의원도 이를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천정배 의원은 20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동철 의원이 탈당과 함께 안철수 신당으로의 합류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천 의원은 "윤장현 광주시장을 전라공천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이를 지지한 광주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다시 이뤄지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뒤, "야권 신당이라는 큰 비전을 위해 작은 차이점은 극복해야 하지만 무조건 받아들이면 민심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과 DJ의 상징성이 있는 박지원 의원에 대한 입장도 서로 다르다. 안 의원은 (박 의원과)함께 하기 어렵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는 반면, 타 신당 추진 세력에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함께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이 독자적 신당 창당에 나서고 타 신당 세력이 여기에 합류한다면 호남 정치 복원의 의미가 약화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의원(가운데)이 20일 오후 서울 관악구 박왕규 관악(을)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박 예비후보와 대화를 하고 있다. 맨 왼쪽은 무소속 문병호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총선체제 주류 배치...떨어지는 호남민심

광주·전남 의원들 혁신 대상 반영

비주류 "승부수 아닌 자살골" 비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통합의 인선보다는 범주류 인사들로 조기 총선체제 구축에 나선 것과 관련, 사실상 호남 민심을 '혁신'으로 붙잡겠다는 '승부수'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혁신과 통합을 통한 승리의 비전 제시 없는 "그들의, 그들만의, 그들을 위한 혁신"이라며 "승부수가 아닌 자살골"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호남 민심이 항배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문 대표 등 당내 주류 진영에서는 호남 민심의 실체는 '변화와 혁신'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과 연대의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혁신의 리더십으로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천에 나선다면 돌아선 호남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류 일각에서는 호남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의 탈당설에 '나갈 사람은 나가도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혁신 공천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의원들이 미래의 비전보다는 혁신과 변화의 대상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있다. 혁신 공천은 호남 민심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주류 진영에서 탈당파 의원들의 지역구에 대체 인사들을 이미 확보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탈당한 광주 모 의원 지역구에는 운동권 출신의 K씨의 공천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은 문 대표 등 주류 진영의 마이웨이 행보에 "지극히 오만한 발상"이라는 반응과 함께 호남 민심과의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호남 민심은 통합의 리더십으로 총선 및 대선 승리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인데 주류 진영에서 이를 외면하며 호남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표는 지난 18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이목희 의원, 전략공천관리위원회장에 김성근 의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에 신정위 위원장은 이재근 의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백재현 의원, 비례대표선출규정TF팀장에는 홍익표 의원 등 주요 당직에 주류 진영 의원들을 앉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선 야권후보 지지도 안철수 41%-문재인 33% 호남선 안이 2배 가까이 앞서

야권 재편의 중심으로 떠오른 안철수 의원이 차기 대선 야권후보 지지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상당 폭으로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후인 지난 15~17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상대

로 실시해 지난 18일 발표한 조사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안 의원과 문 대표 중 차기 대선 야권후보로 누가 좋은지'를 묻는 설문엔 안 의원은 41%를 기록, 33%의 문 대표를 8%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특히 호남지역에

서 지지도는 안 의원이 48%를 기록, 27%의 문 대표에 비해 2배 가까이 됐다.

안 의원의 탈당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44%,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25%였으며, 31%는 의견을 유보했다. /백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김한길 “남은 시간 없다...고민 깊어간다”

탈당 배수진 문재인 결단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20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표의 진심에 의지하면서, 야권의 총선승리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지도자로서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청한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성 발언을 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제 고민도 점점 더 깊어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탈당 등 거취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전 대표는 또 “당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누구든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식의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18대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고, 지난해 당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안고 물러났던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총선승리를 위한 야권통합의 길을 막아선다면 누구와도 결연히 맞설 것”이라며 “우리 당이



마침내 문재인당으로 남을 것인지, 야권통합으로 총선승리를 실현해낼 것인지를, 이제 문 대표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4년 전 총선 패배를 언급, “당권을 장악한 패권 세력이 말로는 혁신공천을 앞세우면서 실상은 계파공천을 밀어붙인 것이 가장 큰 패인으로 꼽힌다”면서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자신과 함께 새정치연합을 창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뒤 지난 15일, 17일 이어 이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문 대표를 공개 비판하며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전 대표가 탈당할 경우 소속 계파 의원들이 집단 탈당함으로써 야권재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제 15회 하나투어 결혼박람회

2016. 1. 23(토) ~ 24(일) 11:00 ~ 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최대 140만원 할인 혜택
예약 시, SM면세점 3만원권 선불카드 제공

프리미엄 로드샵 바로가기

하나허니문 결혼박람회 추천 상품

<p>클래식 ABW100_KE/OZ/LJ_R 푸켓 6일</p> <p>더 나카 오션뷰 풀빌라(2+2)</p> <p>총상품가 1,749,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p> <p>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p> <p>특 전 : 커플 80만원 할인/데일리 감쪽선물 제공/로맨틱 스낵촬영&오토투어 포함/스파마사지 3회</p>	<p>클래식 AXW100_SQ/KE/QR_H 몰디브 6일</p> <p>하이드러웨이 디럭스 워터빌라 위드 풀</p> <p>총상품가 3,763,600원~</p> <p>현지지불 ▶ 몰디브 공항택스(1인 \$25), 현지선택경비</p> <p>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p> <p>특 전 : 30분 커플마사지 1회 무료 제공/30분 스낵촬영 무료 제공(50매 - CD로 증정)</p>
--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포함한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 지불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착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여하에 따라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보를 받습니다. ■관광사전자 동북번호: 02-6900-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환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원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참수 권고 4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